수도권 쏠림에 지거국 너마저… 정시 경쟁률 '사실상 미달'

〈지방거점국립대〉

평균 경쟁률 2.7대 1 '역대 최저'
전국 83개 대학 미달 사정권 들어
안동대 1.4대 1, 군산대 1.6대 1
수험생 감소, 수도권 집중화 영향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방대학교의 과반수가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사실상 미달'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인 전남대(경쟁률 2.7대 1)를 비롯해 국립대 12곳도 3대 1 이하의 경쟁률로 원서 접수를 마치며 '미달 위기' 사정권 안에 들었다. 원서 접수 수험생이 대학 입학 선발 인원에 못 미치며 미달이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17곳에 달한다.

경쟁률 3대 1 미만인 대학은 전국에서 총 82곳으로, 전체 대학 40%에 달하는 수치다.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은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해 최종 등록 후 이탈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분류된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방대 위기가 입시에서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대학 17곳 '정원〉응시'…지방대 경쟁률 사상 최초 3대 1 아래로

13일 종로학원하늘교육 집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대학 17곳이 원서 접수에서 응시 수험생 수가 학생 선발 인원에 못 미치면서 미달이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대학 10곳이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서부터 미달이 확정돼 올해 7개 대학이 증가했다.

〈2021학년도 미달 확정 대학 17곳〉

소재지	학교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부산	신라대학교	731	1,609	2.2	1,026	961	0.9
경북	김천대학교	296	370	1.3	339	309	0.9
경남	영산대학교(양산)	199	421	2.1	212	192	0.9
충북	중원대학교	388	983	2.5	533	464	0.9
경북	동양대학교(영주)	151	267	1.8	238	199	0.8
광주	호남대학교	110	432	3.9	328	254	0.8
경기	루터대학교	30	46	1.5	56	42	0.8
광주	광신대학교	61	45	0.7	71	52	0.7
광주	광주대학교	214	538	2.5	516	358	0.7
전남	한려대학교	180	136	0.8	146	89	0.6
경기	서울장신대학교	41	81	2	73	35	0.5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59	58	1	106	41	0.4
경북	대구예술대학교	294	232	0.8	298	113	0.4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70	55	0.8	85	28	0.3
경북	경주대학교	436	180	0.4	419	135	0.3
경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21	38	0.3	122	36	0.3
충남	금강대학교	97	58	0.6	98	27	0.3

/종로학원하늘교육

문제는 학생이 최종 등록을 마치고 나면 미달 대학은 더욱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시모집은 수험생 1인당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이후 합격 여부에 따라 1개 대학을 결정해 최종 등록을 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한 대학에서 정시모집 접수 인원의 3분의 1만이 최종 등록을 하는 셈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경쟁률 평균은 2.7대 1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 경쟁률이 3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수능 이후 올해가 사상 처음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2016학년도 4.4대 1▲2017학년도 4.3대 1▲2018학년도 4.2대 1▲2019학년도 4.5대 1 ▲2020학년도 3.9대 1이었다.

수험생이 정시에서 3개 대학에 지원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올해부터 지방 대부분 대학에 미달 사태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대 12곳도 '사실상 미달'…올해 대학 미충원 규모 7.6만명

경쟁률이 3대 1 이하를 나타내며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은 교육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83개 대학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지방권 대학에 집중됐다. 지방권 소재 전체 124개 대학 중 71곳이 경쟁률 3대 1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57.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안동대 1.4대 1 ▲군산대 1.6대 1 ▲전남대(여수) 1.6대 1 ▲순천대 1.8대 1 ▲경북대(상주) 2.0대 1 ▲목포해양대 2.1대 1 ▲목포대 2.4대 1 ▲한국교통대 2.3대 1 ▲금오공대 2.8대 1 ▲한밭대 2.7대 1 ▲창원대 2.5대 1 ▲강릉원주대 2.8대 1 등 국립대도 12곳이나 포함됐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 접수 평균 경쟁률도 크게 줄었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작년 평균 경쟁률은 5.6대 1이었지만, 올해는 5.1대 1로 내려앉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서울권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 평균 경쟁률은 4.8대 1이다. 지난해는 5.6대 1이었다. 지방권 소재는 3.9대 1에서 2.7대 1로 전국적으로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경쟁률도 3.6대 1로 전년 4.6대 1보다 하락했다.

이런 경쟁률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한다는 점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대입 정원은 49만7218명이다. 올해 입학가능자원은 42만893명으로 본격적으로 역전현상이 시작된다. 미충원 규모는 7만6325명이다.

해가 갈수록 입학가능자원과 대입정원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대입 정원을 올해 수치인 49만7218명으로 봤을 때, 내년 입학가능자원은 41만2034명으로 미충원 규모는 8만5184명으로 더 커진다. 2024년이 되면 입학가능자원은 37만3470명으로 더 줄어들어 미충원규모가 12만3748명이 되면서 처음으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 수가 10만명 선을 넘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화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돼 지방권 소재 대학은 사실상 정시에서 신입생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수시가 지방권 소재 대학에 유리하다고 인식돼 있으나 실상은 지방권 소재 대학은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지원 기피 현상까지 발생해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구조"라며 "사실상 지방권 소재 대학은 정시 없이는 선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의대 경쟁률 6.13대 1… 전년보다 소폭 줄어

모집인원 늘면서 지원자도 증가
군별 평균 경쟁률, 나·다군 높아

대학 입시 경쟁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도 경쟁률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예과가 개설된 전국 38개 대학에서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한 결과 평균 6.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경쟁률(6.23:1)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원자는 증가했지만, 모집인원이 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38개 대학의 의예과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정원내 기준 1285명 모집에 7871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6.13대 1이다. 작년에는 1255명 모집에 7816명이 지원해 6.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별로 보면, 가군에서는 710명 모집에 2668명이 지원해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는 의대 정시 가군 정원은 다소 늘었다. 가군에서 강원대가 의예과 모집을 신설해 19명을 선발했고 부산대, 이화여대, 충남대는 정시 모집을 늘렸다. 아주대와 연세대(미래), 인제대, 조선대는 수시이월 인원이 많이 증가하면서 가군 모집이 전년대비 89명이나 증가했다. 모집인원이 증가하면서 지원자도 245명 늘었다.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의예과(인문)이 6명 모집에 35명 지원해 5.83대 1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나군은 346명 모집에 1908명이 지원했다. 총 경쟁률은 5.51대 1이다. 가군과 다르게 나군에서는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25명 줄었다. 고려대와 한림대 수시 이월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모집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원자는 9명 늘면서 지원율은 상승했다.

나군에서는 충북대가 19명 모집에 203명이 지원해 10.68대 1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229명을 모집하는 다군에서는 3295명이 지원해 14.39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다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수시 이월 인원이 감소했다. 모집인원 감소로 인해 지원자도 199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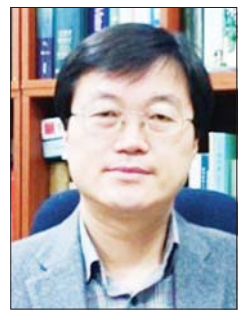
다군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의학과·인문과 인하대 모집이 25.67대 1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순천향대도 경쟁률 18.89대 1로 높았다.

/이현진 기자

비대면 졸업식 이재관 서울 우솔초등학교 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제8회 졸업식에서 화상을 통해 보이는 학생들을 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옥고, 갱년기 증후군 개선효과 확인"

류종훈 경희대 교수 연구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류종훈 교수(사진)연구팀은 한방의약품인 '경옥고'가 갱년기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증상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난소 절제 동물모델을 이용한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라는 제목의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갱년기에 발생하는 우울감, 인지기능감퇴 등에 경옥고가 개선효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갱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 중 '우울감'과 '인지기능 감퇴'에 대한 경옥고의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실험을 위해 난소 절제술로 인위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유도한 실험용 쥐를 사용했다.

실험 연구 중 '우울감 개선효과'는 강제수영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인지능력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물체 인지능력 평가와 Y자 미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용 쥐에게 광동제약 경옥고를 시료로 투여해 변화 추이를 관찰했다. 난소절제로 유도된 갱년기 모델에서 강제수영 실험을 실시한 결과, 경옥고 600㎎/㎏, 1800㎎/㎏을 8주 투여했을 때 우울증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내일 '글로벌 한국학 포럼'

숭실대학교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이 해버포드대학에서 방문 조교수로 재직 중인 신승엽 교수를 초청해 15일 '제1회 글로벌한국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콘텍스트를 넘어선 텍스트, 식민권력, 담론 그리고 정감록'이다. 포럼에서는 일제 시기에 어떻게 근대적 종교 범주화가 이뤄졌는지를 조선 후기의 비서(秘書) '정감록'(鄭鑑錄)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수시합격 신입생 학업 지원

2주간 '덕성이룸 예비대학' 운영

덕성여자대학교가 2021학년도 수시전형 합격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과 학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덕성여대는 수시합격 신입생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2021년 덕성이룸(Iirum) 예비대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덕성이룸 예비대학'은 단과대학별로 통합 선발된 신입생을 대상으로 ▲덕성나눔 ▲덕성탐구 ▲덕성이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적응을 돕는 과정이다.

'덕성나눔'은 덕성의 역사, 덕성의 비전과 이룸을 소개하고, '덕성탐구'에서는 학사제도, 전공소개, 전공탐색과목, 동아리 소개, 비교과 활동, 부서별 학교생활 안내 등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